

# 치매 환자 빠르게 늘는데... 못 따라가는 관리대책

### 광주·전남 치매 환자 8만여명... 실종·사망 사례 잇따라 배회감지기 보급 지지부진... 지자체 차원 대책 마련을

지난 27일 영광군에서 실종됐던 치매 노인 A(여·94)씨가 28일 오후 숨진 채 발견됐다. 영광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영광군 흥농읍에 있는 집을 나서 약 1km 떨어진 전북 고창군의 한 농수로 인근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날 고흥군에서도 치매 노인 B(여·81)씨가 실종된 뒤 4일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고흥경찰에 따르면 B씨는 고흥군 영남면의 집에서 2km 떨어진 마을 뒷산 풀숲에 쓰러져 있었으며 마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A·B씨 모두 치매 증상으로 인근을 배회하다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숨진 것으로 추정했으며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전했다.

광주·전남에서 노인 인구와 치매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치매 노인이 실종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치매 노인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광주·전남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꾸준한 증가세다. 광주에서는 2019년 24만

7106명에서 2021년 27만 4704명으로 13.18% 증가했으며, 전남 또한 2019년 57만 6881명에서 2021년 62만 2642명으로 7.93% 증가했다.

늘어난 노인 인구만큼 치매 환자도 늘었다. 보건복지부의 '2021 대한민국 치매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5세 이상 광주 치매상병자는 2만 2011명, 전남은 6만 402명에 달한다. 치매 상병자는 치매 증상으로 병원 외래진료를 받거나 입원, 약국 이용 등을 한 사람을 가리킨다. 광주·전남 노인 열 명 중 한 명(9.58%)은 치매 진단 및 치료를 받은 것이다.

치매노인이 실종되는 사례도 줄지 않고 있다. 광주경찰에는 2019년 343건, 2020년 259건, 2021년 401건의 치매 노인 실종 신고가 접수됐으며, 올해도 지난 11월까지만 388건 넘게 접수됐다. 전남 또한 2019년 306건, 2020년 340건, 2021년 298건, 2022년 269건 등 치매노인 실종 신고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6월부터 실시된 실종경보문자 송출제도

로 실종노인 재난안전 문자도 연일 울리고 있는데, 경찰은 지금까지 광주 75건, 전남 100건의 치매환자 실종경보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치매 환자는 완치가 어렵는데다 배회, 충동적 행동 등 증상을 보일 수 있어 환자 관리가 중요한데, 실상은 실종을 예방할 장비 보급조차 지지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전남 치매안심센터에서 지난 2018년부터 발급 중인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부터 제자리걸음이다. 이 인식표는 치매로 길거리를 배회할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에게 이름, 주소, 보호자 연락처 등을 적어 옷에 다리미로 부착하는 표다.

다만 광주에서는 2020년 373건, 2021년 387건, 2022년 469건을 나눠주는 등 보급률이 늘지 않고 있다. 전남 또한 2020년 1168건, 2021년 1189건, 2022년 1544건 등 보급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치매노인의 동선 파악에 효과적인 '배회감지기' 보급도 지지부진하다.

배회감지기는 치매 노인의 손목 등에 착용하는 밴드형 스마트 기기로, 휴대전화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치매 노인의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장치다. 미리 설정해 둔 안심 지역을 이탈하면 자동으로 보호자에게 알리는 기능도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안심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배회감지기를 보급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경찰청·SK하이닉스와 협력해 배회감지기 보급사업을 하고 있으나, 광주에는 2021년 60대, 2022년 34대 총 94대를 보급하는 데 그쳤으며, 전남 또한 2021년 261대, 2022년 200대로 총 461대만 보급됐다. 민간 기업의 사회공헌기금으로 구입·보급하는 터라 보급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치매안심센터 설명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또한 한 달에 50~60대 수준으로 지급해 2022년 한 해 동안(11월 기준) 광주 728대, 전남 545대를 보급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민간 업체가 아닌 각 지자체가 복지 예산을 활용해 직접 배회감지기 등을 구입해 보급하는 등 직접적인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이정서 조선이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치매 노인들을 위한 배회감지기 및 인식표 등의 장비 제공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각 지자체에서도 노인 복지 관련 치매 물품 지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전남교육청 교육재정 우수

전남교육청이 2022년 지방교육재정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남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2022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평가'에서 학교회계 우수사례에 뽑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도 교육청은 학교회계 목적사업비 교부방식 개선, 단위학교 이·불용액 최소화를 통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학교회계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했으며 학교기본운영비로 통합지원이 가능한 목적사업비를 점진적으로 확대했다.

박영수 전남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지방교육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7**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도로 파임 주의하세요 |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한 도로에서 28일 제설작업의 여파로 포트홀이 발생했다. 포트홀은 제설제로 녹은 눈이 도로 포장에 침투해 도로 표면의 일부가 부서지는 현상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일제 강제동원 피해 한국이 먼저 해법 내는게 말이 되냐”

### 시민모임, 정부 규탄

강제동원 문제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보다 한국 정부가 먼저 발표할 것을 공식화하자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28일 성명을 내고 “때린 사람 대신 맞은 사람이 먼저 해법을 내놓는 게 세상 어디있냐”며 규탄했다.

외교부 당국자가 26일 “한국 정부가 먼저 해법을 발표하면 일본 측에서도 성의 있는 호응조치가 있을 것이다. 동시에 합의문을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은 한국대로 하고 일본은 일본대로 하고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시민모임은 “가해자 일본 피고 기업과 가해국 일본 정부는 가만히 있고, 피해국 정부가 먼저 해법을 발표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면서 “미쓰비시 등 일본 피고 기업은 대한민국 최고법원의 판결에 따라 ‘배상 의무’를 져야 할 대상이지, 피해자를 위해 ‘기여금’이나 ‘선의’를 베풀 위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5년 한일 외무장관의 위안부 합의 때도 피해자들에게 사죄하지 않았고, 참혹한 강제노역 장소 군함도를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전모를 사실대로 기술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한국이 선 조처하면 일본이 호응할 것이라는 것도 순진함을 넘어 무지몽매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 “광주시교육청 감사 규정 강화하라”

### 학벌없는시민모임 “규정 명확하지 않아 비리에 취약”

광주시교육청의 학교 감사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각종 비리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28일 성명을 내고 광주시교육청에 “학교 감사규정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 자체 감사 규정에 따르면 종합감사의 주기와 기간은 정해져있지만, 학교에 대한 감사 시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돼 있어 구체적인 감사 주기와 기간을 정하

지 않았다”면서 “내년 조직개편으로 인해 감사인력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감사 주기마저 일정하지 않다면 광주지역 300여개 학교현장은 감사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각종 비리에 취약해질 위험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지어 ‘퇴직 전 감사’도 지난 2019년에 폐지돼 경각심이 떨어졌고, 지난해부터는 학교감사가 자율적으로 확대돼 내실있는 감사 수행이 가능한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 전남도, 야외 조류인플루엔자 특별 소독

전남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확산 우려에 따라 야외 바이러스 제거를 위한 특별 소독을 추진한다.

시·군은 오는 31일까지 4일간 살수차, 공동방제단 등 가용 소독차원 268대를 총동원해 발생농장, 주요 철새 서식지, 가금 밀집지역, 도축장 주변 도로 등에 대한 집중소독에 나설 방침이다.

가금농장과 도축장 등 축산시설 종사자와 축산

차량 운전자 등도 자체 소독장비를 동원, 농장·시설·차량과 사육 도구·장비 등을 매일 농장 첫 출입할 때와 오후(2~3시) 등 두 차례 집중 소독을 추진한다.

가금농장은 축사를 진입할 때 방역실에서 소독, 전실에서 손소독 및 전용 장화 갈아신기 등 차단방역 수칙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그린알로에

GREEN GOONG PRIME EVER 120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